

축제 열고 석양명소 만들어 해외관광객 3000만 시대 연다

서울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
한강 불꽃놀이, 주요축제와 연계
요가 이벤트·야경투어 등 진행
북악산 등 등산관광 콘텐츠 개발
내년까지 '서울형 관광지표' 만들어
서울관광 수준 주기적 평가·관리



서울시청.

/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해외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내사산·외사산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산, 24시간 잠들지 않는 야경과 같이 기존에 경쟁력 높은 관광 자원뿐 아니라, 개방된 청와대와 새단장을 마친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에 관광 소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한강 불꽃놀이를 서울페스타 같은 주요 축제와 연계해 확대하고, 드론 라이트쇼도 새롭게 개최한다. 한강에서

대규모 요가 이벤트, 야경투어,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서울 웰니스 관광 페스타'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포인트로 다양한 명소와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광객들이 대도시 도심에서 등산을 하는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개방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북악산·인왕산과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을 중심으로 등산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기구를 타고 야경을 즐기는 체험장을 마련하고, 청와대·광화문광장 등을 둘러보는 야간 바이크 코스도 개발·운영한다. 이 밖에도 야간등산, 야간 도보해설관광, 야간 맛기행, 야간 시티투어버스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를 주력

관광 산업으로 키운다. 그 일환으로 시는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라스베이거스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바르셀로나의 MWC(정보통신 전시회)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MICE 행사를 발굴한다. 마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시는 MZ세대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관광 환경 구축에 나선다. 여행 전에는 메타버스에서 미리 서울 관광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여행 중에는 이동·예약·결제 관련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체가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B2B(기업 간 거래) 사이트인 '서울 365여행 플랫폼'을 제작해 디지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자생적인 관광 생태계 혁신이 이뤄지도록 신규 관광 스타트업

을 발굴, 상생 협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관광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관광지표'를 내년까지 만들어 성장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방침이다. 단순 관광객수 위주의 정량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지출액,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를 고려한 서울관광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기존 서울 관광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몰릴 정도로 큰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약진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관심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 생태계를 회복하고, 글로벌 탑5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생활지도법 마련 '무너진 교실' 바로 잡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예방 등 시안 마련키로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의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처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원점으로 복귀했다. 대면수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교권침해 등 학생들의 수업 방해 사례가 연달아 이어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18년 2454건에서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다시 226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었지만 학교 등교가 재개되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임에도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 95%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 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교원들의 고충이 깊어지자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책 모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자 14일 간

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해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며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이 조례 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16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오토살롱위크가 개최된다.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오토살롱위크' 개최

대한민국 최대 오토비즈니스 전시회
오늘부터 3일간... 180여개 사 참여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 '2022 오토살롱위크'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2022 오토살롱위크'는 자동차 산업 전반과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한 대한민국 최대 오토비즈니스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총 180여개 사가 참여해 1,300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아웃도어 레저 및 여가 활동 트렌드에 발맞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인식을 조명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시승, 경진대회 등 직접 체험형 전시가 확대될 것이 특징이다. 시승형 체험행사로 '라라클래식'이 처음 선보인 국내 최초의 클래식 스타일 극소형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와 '프리마모터스'의 JEEPWRANGLER 4xe이 있으며 '한국타미야'의 △무선모형자동차대회, △2022 코리아미니카레이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전국자동차정비기능경진대회(자동차 정비부문/자동차 차체 수리부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튜닝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경진대회도 열린다. /안성기 기자 ask999@

국민대, 라오스 학생에 온라인 교육봉사

초·중·고 학생에 소프트웨어 교육

국민대학교가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8월 1일에서 6일에 걸쳐 라오스 우돔싸이주 프언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19명으로 구성된 국민대 교육봉사팀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위해 교육 콘텐츠

를 직접 제작했다.

라오스 현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라오스의 교육 환경에 맞춘 코딩 교육, 환경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들은 저마다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라오스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딩 교육을 맡은 유다현 경영정보학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현지 학생들이 외국어 수업을 듣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가르쳐주고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다"며 "코딩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준 덕분에 멘토들 역시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수시지원자 접수공개 리포트 18일 오픈

진학사, 지원대학 자신의 위치 파악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는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대상으로 한 '수시지원자 접수 공개 서비스'의 접수 공개 리포트를 18일 오픈한다.

'수시 지원자 접수공개 서비스'는 자신이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을 선택 후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자신과 같은

대학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이 입력한 내신 성적 등의 확인이 가능해,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보 확인은 해당 대학에 지원하고 성적을 입력한 학생들이끼리만 가능하다. 진학사는 수험생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여 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며 좋은 반응을 기대했다. /신하은 기자